

정원도시 순천, 대한민국 브랜드가 되다

순천만정원 제1호 국가정원 지정 의미와 전망



순천만정원의 토피어리 야경

순천만정원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1호 정원으로 지난 5일 지정됐다.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은 순천시 역사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정원이라는 단어가 법률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국가정원 지정으로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됐다.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으로 순천은 정원 브랜드 도시로,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발상지로 정원산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시발점은 순천만=순천만국가정원 시발점은 순천만이다.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로 2003년 습지 보호지역, 2006년 랍사르협약 등록, 2008년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41호로 지정돼 농경, 절경, 정동어 등과 같은 깎뿔 생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두루미류 1005마리가 관찰되는 등 세계적인 두루미 월동지로 자리잡고 있다.

순천만은 2002년 10만명이었던 관람객이 점차 늘어나면서 연간 300만명의 방문객으로 인한 자동차 매연과 소음 등 순천만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순천시는 절대 보전공간인 순천만을 지키기 위해 순천만 입구를 순천만에서 5.2km 떨어진 박람회장으로 옮긴 뒤 국내 최초로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기획하게 됐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탄력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로 2013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순천만정원

내년 운영비 36억 정부 지원... 일자리·지역경제 활성화 배움·치유의 수학여행 명소로 거듭나 관광객 급증 기대

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111만2000㎡에서 열렸다.

정원박람회는 국제행사중 최장기인 6개월간 개최한 박람회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총 440만명의 관람객 중 유료 관람객이 386만명인 87.7%를 기록, 지자체가 주최하는 국제행사 운영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없었던 정원이라는 개념을 법률적으로 정립하게 된 계기를 만드는 등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국가정원 지정까지=이같은 박람회 기간의 성공속에서도 사후활용이 큰 해결 과제로 꼽혔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대부분

의 박람회는 산업박람회로 박람회가 끝난 후 사후활용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박람회 기간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 21세기 생태와 문화로 대변되는 시대정신을 담기 위해 정원박람회장의 사후 활용 방안으로 2014년 순천만정원을 영구 개장하는 결단을 내리게 된다.

순천시는 영구 개장 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정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전남도에 이어 정부를 설득해 2014년 2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4년 12월 29일 순천만정원을 모태로 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국가정

원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이어 올 1월 20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으며 7월 21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이어 지난 5일 역사적인 국가정원 지정 선포식을 개최하게 됐다.

◇순천만국가정원 효과=순천만정원 국가정원 명칭은 '순천만국가정원'으로 정해졌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배움과 놀이의 공간, 휴식과 치유의 터전으로 행복한 도시 순천, 일자리와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정원으로 보존될 예정이다. 물론 정원을 가꾸고 보존하는 비용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만 순천만정원에 36억원의 시설관리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의 작은 도시인 순천시가 제1호 국가정원 보유도시로 이름을 알리게 됨에 따라 순천을 찾는 관광객 등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제1의 생태체험학습장으로 교과서에도 실리게 돼 대한민국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방문하는 수학여행의 명소로도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순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등에 국가정원이라는 타이틀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소득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종훈 순천시장은 "1호 국가정원이라는 후세에 길이 남을 역사적 가치를 자선으로 순천만과 순천만국가정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고 30만 자족도시, 행복지수 전국 1위 달성을 위해 시민 중심의 시정의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중기자jeikim@kwangju.co.kr

오늘 순천서 제16회 영호남연극제 개막

13일까지 문화건강센터

서울·춘천 극단 등 참여

제16회 영호남연극제가 9일부터 13일까지 순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지난 5월 경북 구미시에서 시작된 이번 연극제는 경남 진주시, 전북 전주시, 순천시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개최된다.

순천에서는 공식초청작 5개 작품과 1인극으로 구성된 작은 극장 초청작 4개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공식 초청작은 서울 극단 배랑끝날다의 '클라운타운', 서울 극단 차이무의 '바람난 삼대', 서울 극단 황금가지의 '만두와 깔창', 춘천 극단 유진규의 '어루만지는 몸', 전주 극단 까치동의

'불꽃처럼 나비처럼' 등으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명품 공연이다.

작은 극장 초청작인 '달 달 무순달', '아코', '빨간머리 박쥐다다', '아빠에게 쓰는 편지'는 장애인 자립센터, 순천만 요양원 등에서 문화소의 계층과 함께할 예정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극협회 순천지부로 문의(061-744-0041)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영호남 연극제는 영호남 연극인들의 화합의 장을 넘어서 시민에게 수준 높은 연극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 행복 지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 기자@psc

65세이상 어르신 무료 독감 예방접종

순천시, 내달 1일부터

순천시는 "10월 1일부터 보건소와 위탁 병·의원에서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무료접종은 보건소에 서만 가능했지만, 순천시는 올해부터 관내 71개소의 민간 의료기관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방접종을 원하는 65세(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상 어르신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위탁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된다.

위탁 민간 의료기관 71개소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61-749-6812, 6913)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무료접종을 보건소로 한정돼 있는 탓에 어르신들이 접종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면서 "올해부터는 집 근처 병·의원에서 무료독감 예방접종을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 기자@psc

새 일길

"사회안전망 구축 범죄 예방 최선"

김상록 순천보호관찰소장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김상록(53) 순천보호관찰소장은 8일 "보호관찰소는 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범죄자의 안전한 사회응을 지원해 범죄예방 등 범죄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록 소장은 인천, 수원, 청주 등 보호관찰소를 거쳐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와 구미보호관찰소 소장,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을 역임했다.

/순천=김은중기자jeikim@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김농 Set

다담 Set

우전갈로

김사 Set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각종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업선된
 남인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人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식품명인지정서

2015년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품문의 한국제다 본사 062-222-3973 | 차생원 본점 062-232-3973 |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부산 차생원 051-7007~8